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 간호대학 · 서울성모병원 · 여의도성모병원 · 의정부성모병원 · 부천성모병원 · 은평성모병원 · 인천성모병원 · 성빈센트병원 · 대전성모병원

심장을 향한 희망의 라인

부천성모병원 심혈관중재술 20주년

심혈관조영술, 관상동맥중재술 등 20년간 누적 검사 및 시술 3만례 돌파
국내 최초 심혈관·뇌혈관 통합 동시 진료 시행, '혈관치료 특화병원' 입지 구축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이 올해로 심혈관중재술 시행 20주년을 맞이했다.

부천성모병원 순환기내과 김희열 교수는 지난 2005년 7월 심혈관조영술 및 관상동맥중재술을 시작한 이래 2025년 5월까지 심혈관 관련 누적 시술 3만례를 돌파하며 경인지역 서부권 심장 혈관 건강을 책임져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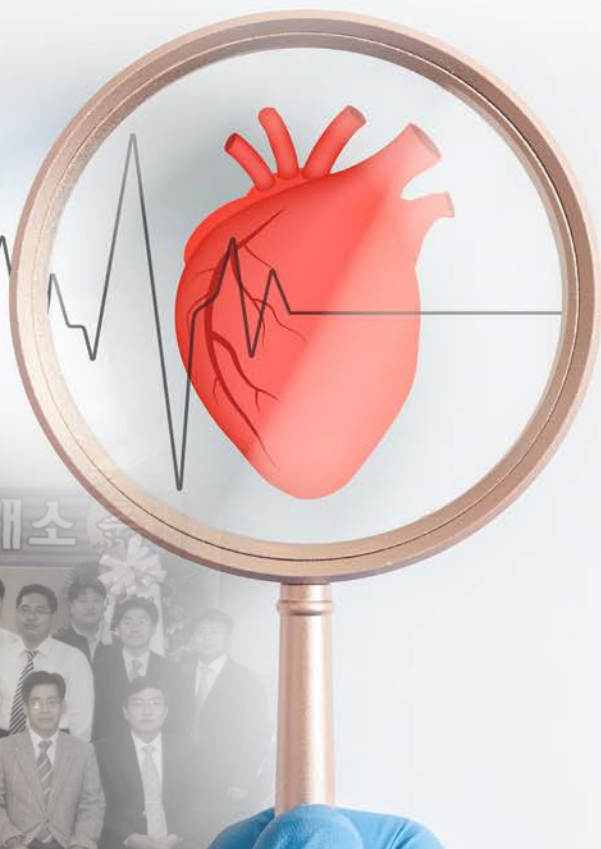
부천성모병원은 1983년 서울에서 부천시로 이전 개원 당시 순환기내과를 개설하며 심혈관계 질환의 조기 진단과 정밀 치료에 집중해 왔다. 2006년 심혈관센터를 개설, 관상동맥질환 관련 시술, 부정맥의 전기생리학적 검사 및 고주파 절제술, 인공 심박동기 삽입 및 심부전, 동맥경화질환에서의 다방면 치료로 심혈관 환자의 생존율과 예후 개선에 이바지했다. 또한 심혈관 질환 인식 개선을 위해 '심장수호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매년 400여 명이 참석, 지역 사회 보건 교육에도 기여해 왔다.

부천성모병원은 심혈관질환 치료 분야에서 오랜 시간 축적된 경험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확고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응급의료센터와 유기적으로 연계된 혈관조영실, CT, MRI 등 영상 진단 인프라를 병원 1층에 집중 배치해, 응급 환자가 도착하는 즉시 진단과 시술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모든 의료진이 한 팀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원팀 진료 체계'를 바탕으로 골든타임 내 신속한 진료와 치료가 이루어진다.

2021년부터는 국내 최초로 심혈관 전문의와 뇌혈관 전문의가 통합 진료를 시행하는 '혈관센터'를 개소했다. 혈관조영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한 번의 조영제 투여로 심혈관, 뇌혈관, 말초혈관의 문제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검사시스템을 운영, 소량의 조영제를 사용함으로써 조영제에 따른 합병증과 부작용을 줄이고 환자의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환자의 경제적·시간적 부담도 경감시켰다. 심혈관이나 뇌혈관 중 이상이 발견되거

나 증상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다른 혈관에도 이상이 없는지 심·뇌혈관 전문의가 함께 진료를 통해 확인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함으로써 평생 관리해야 하는 혈관에 대한 선제적 예방치료까지 제공했다. 혈관질환의 중심이 되는 심장과 뇌를 동시에 아우르는 진료시스템은 환자에게 보다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해, 의료계에서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9명이 다른 사람에게 적극 추천하겠다고 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진정한 '환자 중심' 시스템이다.

부천성모병원은 앞으로도 혈관질환 치료의 표준을 제시하고, 지역 사회와 대한민국 전체의 심뇌혈관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병원으로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 2005년, 우리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혈관질환 치료를 위해 **심혈관중재술이라는 새로운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여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화성 제34~35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임사

사랑하는 가톨릭중앙의료원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은총 속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한 4년에 대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4년 전, 저는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라는 막중한 보직을 맡게 되면서 **“환자와 교직원 모두에게 신뢰받는 의료원을 만들겠다.”**는 초심을 마음 깊이 새기며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매 순간 의료원과 교직원 여러분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너그럽이 양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저를 믿고 함께 걸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늘 의료원의 방향과 정체성을 제시하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주신 학교법인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는 우리 의료원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든든한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병원장님들과 보직자 여러분들께도 그동안의 수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해주신 교수님들을 비롯한 의료진과 교직원 여러분!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 의료원은 매일매일 생명을 살리고, 희망찬 미

래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책임감 있게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신임 민창기 의료원장님께서는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리더십으로 늘 환자 중심, 사람 중심의 가치를 실천해 오신 분입니다. 조직과 구성원을 깊이 이해하고, 변화 속에서도 균형과 방향을 잡을 줄 아는 신뢰받는 리더이시기에, 저는 우리 의료원의 미래가 더욱 밝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취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간은 언제나 제 마음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병원에서는, 바깥에서는 우연히 마주치게 된다면, 환하게 웃으며 **“잘 지내셨어요?”**하고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년을 얼마 앞두지 않은 저에게 가톨릭중앙의료원은 단지 의사로서, 교수로서, 또 보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곳이 아니라, 삶의 가치에 대한 믿음과 사명, 그리고 사람의 소중함을 배운 진실된 삶의 학교였습니다. 모든 인연 하나하나 평생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의 앞날에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들 모두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

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그리고 **끝까지 함께 걸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민창기 제36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취임사

존경하는 가톨릭중앙의료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니까?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소임을 믿고 맡겨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화성 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936년 성모병원의 개원 이후 **우리 최고의 가치는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는 시대에 맞춰 가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의료원이 나아가야 할 **세 가지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진료 역량의 비약적 강화입니다. 역량 있는 젊은 교원 발굴 육성은 물론 최고 인재를 적극 영입하여 서로 자극하고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필수 의료인력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 환경 변화에 맞게 전문 인력을 교육·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디지털 헬스케어 전략의 확고한 구축입니다. 앞으로의 의료는 디지털, 데이터, 인공지능 없이는 발전을 논할 수 없습니다. 저는 AI 의료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각 병원의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며, 디지털 역량 격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첨단 융합 의학연구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생명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첨단기술과 의

학을 융합해 미래 게임 체인저급의 새로운 진단 및 치료법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성모병원에 이어 2개 이상의 부속병원이 연구중심병원에 선정되도록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학생과 학부모임께, 여러분이 **희망과 비전**을 품고 당당히 미래를 향할 수 있도록, **의학교육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교직원 여러분, 우리는 의미 있는 혁신을 해야 다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는 우리 기관의 경영 방침인 **기대와 용기**를 떠올립니다. **기대는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모습이고 정체성입니다. 용기는 기대를 현실로 만들어주는 것으로 이를 위해 유연하고 기민한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대는 우리의 나침반, 용기는 그 나침반을 따라 걷게 하는 두 발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는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저는 의료원장으로서, 이 변화의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동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함께 기대하며, 함께 용기를 내어, 가톨릭중앙의료원의 내일을 열어갑시다.**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분들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폭음 시간세포-면역세포 간 신호전달 메커니즘 세계 최초 규명

여의도성모 양경모 교수팀, 알코올성 간질환에 新 치료 전략 수립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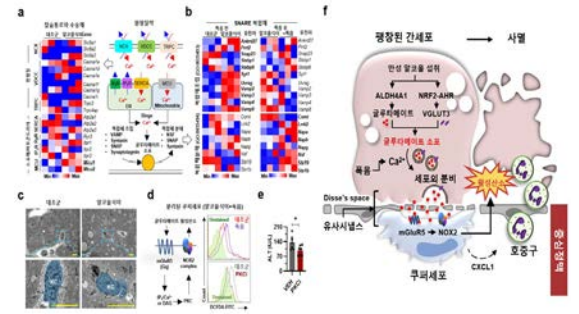
양경모 교수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양경모 교수와 카이스트,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연구팀이 알코올성 간질환의 핵심 발병 메커니즘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이번 연구는 '폭음 시간세포가 글루타메이트를 분비하여 면역세포와 직접 소통하며 염증을 유발한다.'는 발견으로, 알코올성 간질환의 새로운 치료 전략 수립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팀은 만성 음주에 노출된 간세포가 평소 VGLUT3(소포성 글루타메이트 수송체 3)를 통해 글루타메이트를 세포 내 소포에 저장하고 있다가, 폭음 상황에서 세포 내 칼슘 농도 변화로 인해 이를 급격히 방출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분비된 글루타메이트가 간의 대식세포인 쿠퍼세포의 mGluR5 수

용체를 활성화하여 NADPH oxidase 2(NOX2)를 통한 활성 산소종 생성과 염증 반응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알코올로 인해 부풀어 오른 간세포가 쿠퍼세포와 물리적 접촉을 강화하며, 이를 통해 신경세포 간 시냅스와 유사한 '의사시냅스(pseudosynapse)'가 형성됨을 확인했다.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에서는 혈중 글루타메이트 농도 상승, VGLUT3 발현 증가, 염증성 사이토카인 유도 등이 뚜렷하게 확인되었으며, 이는 해당 경로가 실제 임상 질환 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연구팀이 유전학적 및 약리학적 방법을 통해 VGLUT3 또는 mGluR5를 억제했을 때 간염과 간세포 손상이 유의미하게 완화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이 경로를 기반으로 한 조기 진단 바이오마커 개발이나 약물 표적 치료 전략이 활발히 이어질 것이 기대되며, 특히 혈중 글루타메이트 농도 측정을 통한 조기 진단법 개발과



▲폭음에 의해 유도되는 글루타메이트 신호 경로를 통한 간세포-쿠퍼세포 간 상호작용과 알코올성 간질환 발병 기전

VGLUT3 또는 mGluR5를 표적으로 하는 새로운 치료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Nature Communications》(IF=15.7) 2025년 7월호에 게재됐다.



코 연골세포와 첨단 생체재료 결합해 연골 재생 기술 개발

기초의학사업추진단 김성원·구희범 교수팀, '라쿠나' 구조 모사하여 실제 연골과 유사성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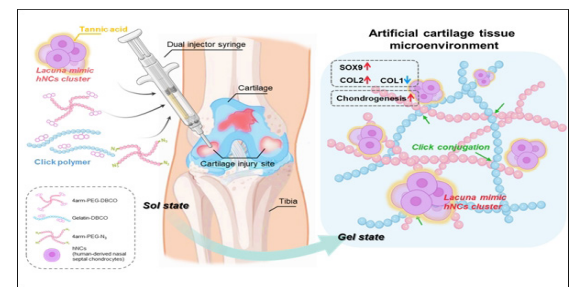
김성원·구희범 교수·전정호·천서영 연구원(왼쪽부터)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기초의학사업추진단 첨단 세포치료사업단 김성원 교수(공동 교신저자,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합성생물학사업단장 구희범 교수(공동 교신저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생명과학교실), 의과대학 전정호 연구원(공동 제1저자), 천서영 연구원(공동 제1저자) 공동 연구팀이 사람의 코 연골에서 얻은 세포와 첨단 생체재료를 결합해

실제 연골 구조를 모사한 '라쿠나 기반 연골 재생 기술'을 개발했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연골의 '라쿠나(lacuna)' 구조를 모사했다는 점이다. 라쿠나는 소수의 연골세포가 서로 밀착한 채 세포외기질에 둘러싸여 있는 특유의 구조로, 연구팀은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 탄닌산(tannic acid)을 활용한 세포 클러스터링 기법(세포들을 뭉치게 해주는 접착제 역할)과 '클릭 화학(click chemistry, 특정 분자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결합하는 반응 기술)' 기반의 하이드로겔을 적용했다.

실제로 연구팀은 이 복합체를 연골이 손상된 쥐 모델에 이식한 결과, 우수한 연골 재생 효과를 확인했으며 면역조직화학적 분석에서도 실제 연골에 가까운 조직이 형성된 것을 관찰했다.



▲연골의 라쿠나 구조를 모사한 연골 재생 기술 모식도

한편, 이번 연구는 기초의학사업추진단의 전략적 지원 아래 특히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연구재단,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등 국내 주요 기관의 다중 지원을 받아 진행됐으며, 국제 학술지 《Chemical Engineering Journal》(IF=13.2) 9월호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간 기능 저하 간암에 면역항암제 효과 세계 최초 확인

은평성모 이재준 교수팀, 치료 사각지대 간세포암 환자에 맞춤형 치료 가능성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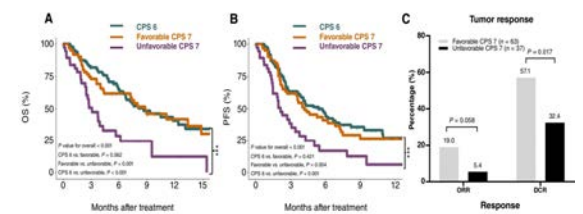
이재준·권정현·이순규 교수(왼쪽부터)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이재준 교수(제1저자),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권정현 교수, 이순규 교수(교신저자) 연구팀이 간세포암 환자 가운데 간 기능이 일부 저하된 상태인 Child-Pugh Score 7점(이하 CPS 7)의 환자에서도 면역항암제 아테졸리주맙·베바시주맙(atezolizumab plus

bevacizumab, 이하 Ate/Bev) 치료가 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연구팀은 국내 7개 대학병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Ate/Bev 치료를 받은 간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후향적 다기관 연구를 수행했다. Ate/Bev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1차 표준치료로 자리 잡았지만, CPS 7 환자는 기존 임상 근거가 부족해 치료 선택의 폭이 제한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연구 결과, CPS 7 환자 중 총 빌리루빈 수치가 2 mg/dL 미만이고, 혈청 알부민 수치가 2.8~3.5 g/dL 사이이며, 복수가 경증이고, 간성 뇌병증이 없는 경우, CPS 6 환자군과 유사한 생존율 및 무진행 생존 기간을 보였다.

또한 이처럼 조건이 양호한 환자군은 전체 생존기간(OS) 및 무진행 생존기간(PFS)에서 CPS 6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



▲CPS 7 환자 중 예후 양호군은 전체 생존기간(OS) 및 무진행 생존기간(PFS)에서 CPS 6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

었으며, 치료 반응률과 질병 조절률 또한 높게 나타나, 선별된 CPS 7 환자군에서 Ate/Bev 치료의 유효성을 뒷받침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암연구학회(AACR)에서 발행하는 세계적 권위의 국제 학술지 《Clinical Cancer Research》(IF=10.2)에 게재되어, 국제적으로도 높은 주목을 받고 있다.



환자와 연구, 두 세계를 잇다

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곽승기 교수



“ 환자와 연구, 두 세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

자가면역질환에 평생을 건 의과학자

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의 곽승기 교수는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 의이자, 새로운 치료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과학자다. 그가 다루는 질환은 전신홍반루푸스(Lupus), 쇼그렌증후군, 전신경화증, 류마티스관절염 같은 대표적인 자가면역질환이다.

자가면역질환은 쉽게 말해, 몸을 지켜야 할 면역체계가 오히려 자기 자신을 공격하면서 발생하는 병이다. 환자들은 관절의 통증뿐 아니라 피부 발진, 탈모, 장기 손상까지 다양한 증상에 시달린다. 병 자체가 희귀하고 복잡해 조기 진단이 어렵고, 치료제 개발도 더딘 편이다.

곽 교수는 이 어려운 분야를 평생의 길로 삼았다. “제가 의대를 택한 이유는 기초의

학에 대한 관심이 컸었기 때문입니다. 임상 의와 연구자의 길을 동시에 걸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류마티스내과였죠.”라고, 그는 답답히 말했다.

하버드에서 배운 세계적인 연구, 국내로 옮기다

젊은 시절, 곽 교수는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산하 베스 이스라엘 디커니스 메디컬 센터에서 루푸스 기초연구를 배웠다. 당시 한국에서는 루푸스 관련 동물 실험 연구가 거의 없던 시절이었다. 그는 쥐 동물 모델을 직접 연구해 국내에 도입했고, 이를 기반으로 여러 중개 연구(기초와 임상을 잇는 연구)를 이끌어왔다.

그는 줄곧 자가면역질환의 치료 표적 발굴, 새로운 바이오마커(질병을 진단하고 예후를 예측하는 지표) 개발, 성체줄기세포·면역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 연구, 마이크로바이옴(장내 미생물 생태계)의 역할 등 폭넓은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곽 교수는 “연구는 결국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기초연구

를 통해 풀리지 않는 환자의 문제를 풀어내고 싶습니다.”라고 밝혔다.

국책과제를 이끄는 연구자

곽 교수의 연구는 국가가 주도하는 굵직한 과제들과도 맞닿아 있다. 지금까지 그가 연구책임자로 수행한 국책과제만 9건이다. 대표적으로 2022년에는 130억 원 규모의 ‘재생의료 인프라 공동활용 지원사업’을 수주했고, 2023년에는 57억 원 규모의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차세대 치료 원천기술 개발사업’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화려한 성과 뒤에는 고충도 따른다. “연구실은 국책연구비 없이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학생 인건비, 실험동물 사육비, 연구 공간 확보까지 모두 비용이죠. 연구비가 끊기면 학생들의 학위 과정도 중단됩니다. 그래서 연구자는 늘 압박 속에 있습니다.” 그는 답답히 털어놓았지만, 그 속에는 책임감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의 힘

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는 국내에서도 가장 많은 쇼그렌증후군, 전신경화증, 루푸스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으로 꼽힌다. 오랜 역사 속에서 기초 연구를 중시하는 전통이 이어져 왔고, 교수들 사이의 긴밀한 협력체계는 곽 교수가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이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류마티스내과 교수진은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지만, 연구와 진료 네트워크로 긴밀히 연결돼 있습니다. 덕분에 환자들에게 최신 치료법을 더 빠르게 적용할 수 있죠.” CMC 산하 병원 간 류마티스내과 연구진들은 지금도 매월 1~2회 정도는 정기 컨퍼런스를 가질 정도로 함께 스터디와 연구를 진행하며 역량을 발전시키고 있다.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진료’

곽 교수는 환자를 대할 때 ‘정확한 진료’를 가장 강조한다. “친절한 의사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진료가 더 중요합니다. 환자의 관점을 생각하며 가장 올바른 치료를 제시하는 것이 제 철학입니다.”

자가면역질환은 증상이 워낙 다양해 환자들이 처음부터 류마티스내과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피부과, 내과, 이비인후과를 전전하다 뒤늦게 진단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타 임상과의 컨설팅은 물론 의료 지식이 퍼져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빠른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다.

후배 의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그는 후배들에게 늘 강조한다. “임상의사라면 진단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연구와 임상의 길을 동시에 걸으려는 후배들이 줄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뜻있는 젊은 의사들이 대학에 남아 의과학자로 성장해 주으면 합니다. 그래야 환자 치료와 연구의 미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길

곽 교수는 현재 루푸스 환자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어떻게 자가면역질환 발병과 연결되는지를 밝히고, 이를 새로운 치료법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다. “자가면역질환은 복잡하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걸음씩 나아가면 반드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곽승기 교수는 환자를 위해 오늘도 진료실과 연구실을 오간다. 그는 환자에게는 따뜻하고 정확한 의사이자, 연구자에게는 쉼 없는 탐구자다. 환자의 삶을 바꾸는 치료가 곧 그의 삶의 이유이자 목표다.





병원에서는 간호사, '부캐'는 아이스하키 선수이자 밴드 보컬입니다

성빈센트병원 101병동 김소연 간호사

최근 몇 년 새, 현대 사회는 취미 또는 자
기계발에 시간을 아끼지 않는 라이프스타
일이 남녀노소 세대를 불문하고 빠르게 자
리 잡고 있다. 이제 취미 활동은 또 다른 삶,
또 다른 자아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여겨지
고, 많은 사람들이 본업으로 일하는 '본캐
(본캐릭터)'와 즐거움을 위한 '부캐(부캐릭
터)'를 동시에 가지며 함께 활동하고 있다.

성빈센트병원의 김소연 간호사 또한 병
원에서는 전문적으로 혈액암 환자들을 돌
보는 빈틈 없는 간호사인 반면, 병원 밖에서
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다채
롭게 채우고 있다. 아이스하키 선수로 대회
에 출전하기도, 직장인 밴드에서 기타와 마
이크를 잡고 감미로운 노래를 들려주기도,
사진 모델이 되어 추억을 남기기도 하는 여
러 면모는 그가 인생에서 찾은 행복의 방법
이라고 한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빈센트병원 101병동
무균치료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6년차 간호
사 김소연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무균
치료실은 혈액암 환자분들이 조혈모세포이
식을 하는 병동입니다. 환자분들이 자가이
식 혹은 타인이식을 진행할 때 백혈구 수치
가 회복되고 생착되기까지 과정에서 환자
들을 간호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하키와 사격처럼 활동적인 스포츠를 즐기신다고요?

평소 땀 흘리는 걸 정말 싫어서 따로 즐
겨하는 스포츠는 없었어요. 우연히 친한 언
니 따라 아이스하키 원데이 클래스에 갔다
가 그 짧은 1시간 20분 동안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재밌게 땀으로 흠뻑 젖을 수 있다는
걸 처음 느끼고 그 이후로 꼭 빠져 지금까지
도 계속 하고 있어요. 아직 실력은 많이 부
족하지만 소속되어 있는 팀에서 최근에 여
자팀을 꾸려서 '한돈배 여자 아이스하키 리
그'에 출전했습니다. 잘하는 팀이 많아 성적
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좋은 첫걸음
이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보
려고 합니다.

사격은 2024 파리 올림픽 당시 핫했던 사
격 종목을 한 번 경험해 보고 싶어서 병원
에서 모집하는 사격 동호회에 무작정 가입해
버렸어요. 종종 모임에 나가며 공기소총, 공
기권총, 클레이사격과 실탄 권총 사격도 해
보았는데, 실탄 권총이 정말 재밌고 생각보
다 성적이 좋아 다른 선생님들께 '지금이라
도 늦지 않았다. 얼른 나라를 위해 군대를



가자.'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직장인 밴드에서 보컬로도 활동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동탄 직장인 밴드 연합에 보컬 오디션을 보
고 합격한 이후로 3년째 보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팀원들이 3교대를 하는 제 근무
시간을 이해해 준 덕분에, 근무일일 경우
는 제가 퇴근하고 나서 혹은 출근하기 전에
모여 2~3시간 정도 합주를 합니다. 1년에
2번 정기공연이 있고, 기회가 된다면 따로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악기들도 다루고 싶
다는 욕심이 생겨 통기타와 일렉기타는 독
학으로 연습을 했고 무대에서 가끔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
는 밴드가 있는데, 우연히 기회가 되어 그
밴드 건반 분께 1년 4개월째 흥대 작업실
에서 건반 레슨도 받고 있습니다. 합주, 레
슨이 근무와 겹치는 경우에는 정말 피곤한데
도 나이트 근무가 끝나고도 흥대에 레슨을
받으러 가고 있어요. 대중교통에서 줄면서
헤드뱅잉까지도 하는데 막상 합주하고 레
슨 받는 시간에는 재밌고 행복하거든요.

특히 병원 행사에 참여했던 것들이 기억
에 남아요. 재작년 빈센트인의 밤 축제 무대
에서 노래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가장 넓은
빈센트를 무대에 올라가니 아마 제 인생
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장 많이 떨

면서 노래했던 순간인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오븐이 생겨 유튜브 레시피를
따라하면서 홈베이킹도 하게 되었어요. 가
장 자신 있는 건 마들렌과 버터바이고 주변
지인들이 맛있게 먹어줄 때 뿌듯하고 행복
합니다. 또 종종 모델로서 스냅사진, 프로필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보면 그때 그 순간
의 감정도 생각이 나고 '나에게 이런 표정도
있구나.'하면서 저의 새로운 모습을 찾곤 합
니다.



이토록 많은 취미를 시작하게 된 계 기가 있나요? 이를 지속하게 하는 원 동력은 무엇일까요?

업무에 적응이 되고 나니, 집-병원만 반
복되는 생활이 지루해서 슬럼프가 올 것 같
았어요. 그때 친구가 '너 노래 부르는 거 좋
아하니까 밴드 해 보는 거 어때?'라는 말을
해 주어 직장인 밴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합주와 공연을
하다 보니, 저는 사람들과 만나고 함께 무언
가 할 때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
달았어요. 지난 5월 공연 때는 무대가 끝난
뒤, 관객들이 떼창하며 호응해 주던 그 순간
이 꿈꾼 것처럼 아련해지며 그리워지는 기
분을 처음 느꼈답니다. 이런 감정들을 하나
둘 느끼면서 저는 앞으로도 더 행복한 추억
을 쌓아가고 싶고, 평생 밴드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취미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출퇴근하는
데 있어 항상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지'하
며 마냥 부정적으로 생각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오늘만 일하면 내일 하키하
러 갈 수 있다!'와 같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
게 되었고, 일하며 받은 스트레스를 다 날려
버릴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 신념이 있다면?

취미생활을 하면서 가지게 된 신념이 바
로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살자'입니다.
즉,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행복'인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으
면 삶의 의욕도 떨어지고, 내가 행복해야 주
변 사람들도 행복해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
는 원동력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 가톨릭중앙의료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민창기 교수



영성구현실장
김평만 신부



기획조정실장
전영준 교수



병원경영실장
배원일 신부

+ 성의교정



대학원장
정연준 교수



의과대학장 겸 교학처장
이동건 교수



간호대학장
이선미 교수

+ 성의교정



교목실장
김우진 신부



입학관리실장
이정현 교수

+ 의생명산업연구원



연구원장
김완욱 교수



연구부원장
김명신 교수



행정부원장
배원일 신부

+ 정보융합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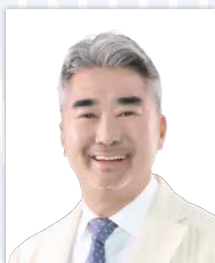


진흥원장
김대진 교수



행정부원장
배원일 신부

+ 서울성모병원



심뇌혈관병원장
천호종 교수



대외협력부원장
양동원 교수



스마트병원장
정찬권 교수



간호부원장
김혜경 국장

+ 여의도성모병원



병원장
강원경 교수



영성부원장
김은기 신부



진료부원장
박철수 교수



행정부원장
전두병 신부

+ 부천성모병원



병원장
박익성 교수



영성부원장
김범준 신부



진료부원장
김태호 교수



행정부원장
김우중 신부



연구부원장
이성수 교수

+ 은평성모병원



병원장
배시현 교수

주요 보직자 인사



연구처장
김완옥 교수

사무처장
배원일 신부

생명대학원장
정재우 신부

보건의료경영대학원장
임현우 교수

임상치과대학원장
양성은 교수

임상간호대학원장
이선희 교수

도서관장
이석형 교수

서울성모병원



의협력부원장
인영 교수

병원장
이지열 교수

영성부원장
신희준 신부

진료부원장
곽승기 교수

행정부원장
최예원 신부

연구부원장
김명신 교수

암병원장
이명아 교수

혈액병원장
김유진 교수

의정부성모병원



원장
신부

연구부원장
임현국 교수

안과병원장
나경선 교수

병원장
이태규 교수

영성부원장
이상훈 신부

진료부원장
김영수 교수

행정부원장
우연호 신부

연구부원장
박정옥 교수

원



영성부원장
황재호 신부

진료부원장
정승은 교수

행정부원장
김경식 신부

연구부원장
김형진 교수

심장혈관병원장
장성원 교수

장기이식병원장
황정기 교수

간호부원장
홍은영 국장



가톨릭중앙의료원, 전 기관 최고 수준 의료서비스 제공 입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폐렴·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1등급 릴레이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부속병원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적정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1등급 행진을 연이으며 명실상부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 역량을 입증하고 있다.



폐렴 적정성 평가 전 기관 1등급 획득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대전성모병원 총 8개 병원 모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제6차 폐렴 적정성 평가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았다.

이번 6차 폐렴 적정성 평가는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폐렴으로 입원한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주사) 치료를 실시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 항목은 ▲(병원 도착 24시간 이내) 산소포화도 검사 실시율 ▲(병원 도착 24시간 이내) 중증도 판정 도구 사용률 ▲(병원 도착 24시간 이내) 객담 배양 검사 처방률 ▲첫 항생제 투여 전 혈액배양검사 실시율 ▲병원 도착 8시간 이내 적합한 첫 항생제 투여율 등이다.

평가 결과,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대전성모병원이 100점 만점, 성빈센트병원 98.1점을 기록하는 등 전체 평균인 82.9점을 크게 웃도는 성과를 거두며 최우수 1등급 의료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가톨릭대 부속병원들은 특히 2014년 첫 평가 이후 6회 연속 최고 등급인 1등급을 유지하며, 폐렴 치료 분야에서의 꾸준한 질 관리와 높은 전문성을 입증했다.

폐렴은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망 원인 3위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감염성 폐질환으로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이다. 증상이 감기나 독감과 유사해 진단이 늦어질 수 있는 만큼, 빠르고 정확한 초기 진단과 항생제 투여 시점이 중요하다.

한편, 가톨릭대 부속병원들은 폐렴과 더불어 폐암 적정성 평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적정성 평가 등 각종 폐질환 평가에서도 1등급 획득을 연이으며, 국내 최고의 호흡기질환 치료 전문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전 기관 1등급 달성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대전성모병원 총 8개 병원 모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처음 실시한 제1차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에서도 모두 1등급을 획득했다.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는 영상검사 이용량 증가에 따른 방사선 피폭, 조영제 부작용 등에 대한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영상검사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심평원이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다.

이번 평가는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입원·외래 환자에게 CT·MRI·PET 검사를 실시한 의원급 이상 전국 1,694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평가지표는 ▲조영제 사용 검사 전 환자 평가 실시율 ▲MRI 검사 전 환자 평가 실시율 ▲피폭저감화 프로그램 사용 여부 ▲핵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PET 판독률 ▲PET 방사성의약품 진단 참고 수준 이하 투여율 등 5개와 모니터링지표 9개를 포함한 총 14개 항목이다.

평가 결과, 가톨릭대 부속병원은 영상검사 정확성과 효율성, 환자 안전성 등 우수한 관리로 모든 지표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여의도성모병원 99.7점, 의정부성모병원 99.5점, 부천성모병원 98.6점, 은평성모병원 99.9점, 성빈센트병원 99.0점, 대전성모병원 99.7점을 연이어 받는 등 전체 평균 (67.6점)을 크게 상회하는 것은 물론, 상급종합병원 평균(98.0점)과 종합병원 평균 점수(86.8점)를 뛰어넘는 성적을 받았다. 이는 영상검사의 질과 환자 안전을 위한 병원의 노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결과다.

이번 결과로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영상 검사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수준 높게 관리하는 의료기관임을 객관적으로 입증받게 됐으며,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그림 찾기

서로 다른 부분 3곳을 찾아보세요.

응모하기



서로 다른 3곳을 체크해 사진 촬영하신 후 QR코드를 인식해 응모해 주세요. (2025.9.18.까지)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각 30,000원 상당의 배달 상품권**을 보내 드립니다.

지난호 정답 및 당첨자

김*덕
이*진
정*희

▶ 당첨자분들께는 휴대폰으로 개별 연락드립니다.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한마음으로”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은 최근 ‘2025 감염관리 주간행사’를 개최했다. 감염관리실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병원 내 감염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병원 로비에서 내원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손 위생 체험행사를 열어 올바른 손 씻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참여자에게는 기념품도 함께 전달했으며, 각 부서 실무자를 대상으로 유행성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신종 감염병 의심환자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했다. 또한 ‘소설과 감염병’을 주제로 한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감염 관리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울성모병원

스탠포드 의대와

글로벌 세포치료제 공동 개발

70억 원 규모 한미 공동 R&D 본격화

세계 최초 저면역원성 iPSC 치료제 개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미국 스탠포드 의과대학과 손잡고, 면역거부반응을 최소화한 저면역원성 유도만능줄기세포(iPSC, hypimmune iPSC) 기반의 범용 세포치료제 개발에 나선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사업의 일환으로 총 7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2025년부터 3년간 한미 공동연구로 수행된다. 연구는 서울성모병원을 주관으로 가톨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주)대웅, 스탠포드 의과대학 등 국내외 유수의 기관들이 공동 참여해 수행되며 국내 주관연구책임자는 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주지현 교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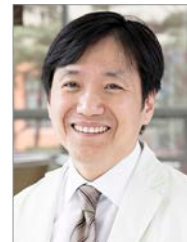
이번 'NiCE(Not-visible iPSC Cell)' 프로젝트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해 인체 면역계로부터 투명한 상태로 인식되지 않는 저면역원성 iPSC 세포주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골세포 및 심근세포 치료제를 제작해 전임상 및 임상 실증까지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성모병원은 본 연구를 통해 기존 연골조직 등 '저면역조직'에 국한되었던 세포치료제 적용 범위를 심장과 같은 고면역 조직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밀재생의료의 글로벌 상용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성모병원은 국내 대학병원 최초로 GMP 등급

iPSC 세포주 생산과 전임상 유효성 평가, 임상 진입 경험을 모두 보유한 기관으로, 이번 과제를 통해 End-to-End 정밀재생의료 플랫폼의 완성도를 더 높이하고자 한다.

이번 한미 공동연구는 줄기세포 기반 치료제의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되어온 면역거부반응을 극복하는 새로운 치료 플랫폼을 실현하는 데 그 의의가 크다. 저면역원성 iPSC 기반 세포는 공여자와 수용자 간 면역적 차이를 최소화하여 면역억제제 없이 이식이 가능하고, 반복 투여나 범용 적용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세포치료제의 한계를 뛰어넘는 차세대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다.

주지현 교수는 "이번 과제를 통해 세포치료제 기술 플랫폼의 고도화와 함께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실증 기반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지현 교수



부천성모병원

로봇인공관절수술

1년 만에 300례 돌파

경기 서부 대학병원 중

최초 도입에 이어 최단 기간 달성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이 경기서부 대학병원 최초로 인공관절수술로봇 'COR(이하 코리)'를 도입한 지 1년 만에 누적 300례를 돌파했다.

부천성모병원 정형외과 박일규 교수가 시행하는 무릎인공관절 로봇수술은 기존 인공관절 수술에 비해 인대 및 신경손

상 예방, 절개 부위 최소화를 통한 수술 후 통증 감소, 빠른 회복 도모, 감염 최소화, 수술 정확도 향상에 따른 인공관절의 수명 연장, 부작용 및 합병증 감소 등 다양한 장점을 갖추고 있어 환자 만족도가 높아 단기간 내 300례 달성이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2024년 부천성모병원이 도입한 인공관절 전용 로봇 '코리'는 의료진의 전문성과 로봇의 정밀함이 결합된 수술 보조 시스템으로, 환자별 맞춤 인공관절을 정밀하게 삽입할 수 있다.

특히 CT 없이도 수술실에서 환자의 뼈를 실시간 스캔하고, 3D 내비게이션 기술을 통해 절삭 범위를 지정하며, 인대 간격 정보를 시각화해 환자 체형에 맞춘 맞춤형 수술이 가능하다. 또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가장 흔한 불편감인 다리의 뻣뻣함을 해소하기 위해, 3D 영상으로 360도 관절 상태와 균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연스러운 보행이 가능한 인공관절을 정밀하게 삽입할 수 있다.

무릎인공관절 로봇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부천성모병원 정형외과 박일규 교수는 "로봇인공관절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집도의로서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환자의 무릎 상태에 맞는 최적화된 로봇수술로 보행의 기쁨을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일규 교수는 아시아 최초로 코리를 이용한 무릎인공관절 수술 국제 교육자 자격을 취득, 무릎인공관절 수술 관련 의료진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인천성모병원

연하장애 재활치료 장비

'RS-STIM 1.0' 도입

기존 치료기기와 병합 적용하여

임상적 치료 효과 시너지 기대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 평가유에 신의료기술로 분류된 연하장애(삼킴장애) 재활치료 장비 'RS-STIM 1.0'을 도입했다.

연하장애는 뇌졸중, 파킨슨병, 치매 등 신경계 질환이나 노화, 두경부 수술, 방사선 치료, 식도 질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단순히 음식물 섭취를 어렵게 하는 것을 넘어 흡인성 폐렴, 영양 결핍, 심리적 위축 등 환자의 삶의 질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재 국내에서는 자세 조절, 보상 전략, 근력 강화 훈련, 연하 재활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등 다양한 연하 재활치료가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RS-STIM 1.0'은 기존 치료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 연하 시 작용하는 근육의 협응 패턴에 따라 순차적으로 자극을 전달해 실제 삼킴 동작을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RS-STIM 1.0'은 뇌와 척수 질환, 뇌기저부 및 두개부 종양 수술 후 등 다양한 환자에게 효과적인 재활을 가능하게 하며, 기존 치료기기와 병합 적용을 통해 임상적 시너지도 기대된다.

인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최영아 교수는 "이번 장비 도입은 연하재활 영역의 임상적 다양성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정교한 맞춤형 재활치료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식사가 가능하도록 연하재활



치료 효과를 높이고,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가유에 신의료기술은 의료적 필요성과 잠재적 유효성을 바탕으로 일정 기준 아래 제한적으로 임상 사용이 허용된 기술로, 의료기관은 새로운 혁신기술을 조기에 적용하고 임상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으며, 환자들은 최신 의료 혜택을 보다 빠르게 경험할 수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수해 이웃에 구호 성금 1천만 원 전달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최근 대규모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구호 성금 1천만 원을 기부했다. 이번 성금은 집중 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삶으로 복귀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됐으며,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사회공헌 조직인 가톨릭메디컬엔젤스를 통해 천주교 마산교구에 전달됐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경상남도 산청, 함천 등 특별 재난구역으로 지정된 피해 지역의 복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일본서 가톨릭 임상의료윤리 교육 시행



가톨릭중앙의료원 윤리위원회 산하 의료윤리전문소위원회는 최근 일본 성마리아병원에서 간호관리자와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가톨릭 임상의료윤리 교육을 마쳤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그동안 가톨릭중앙의료원 교직원에 대해 실시해 온 기초교육 과정과 임상의료윤리위원을 대상으로 한 심화교육의 일부를 재구성해 마련됐다.

여의도성모병원

성모자선회, 영등포구 우수 기부자 감사패 수상



여의도성모병원 성모자선회는 최근 영등포구청으로 부터 우수 기부자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지역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꾸준한 나눔 활동을 인정받은 결과다. 영등포구는 독거노인과 노숙인 등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성모자선회의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따뜻한 연대의 의미를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성모자선회는 '기대와 용기'를 실천하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자살예방 세미나 성료



여의도성모병원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는 최근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이해와 개입 방안'이라는 주제로 2025년 자살예방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자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강의에서는 청소년 자살의 현황과 원인, 경고 신호, 그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개입 방안 등을 깊이 있게 전달했다.

의정부성모병원

지역 어르신 위한 의료 자원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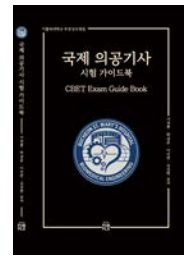
의정부성모병원은 최근 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 150여 명을 위한 무료 급식 행사에 참여해, 지역 사회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 지원을 실시했다. 응급의료센터 이현주 간호사가 직접 현장을 찾아 혈압 측정 및 건강 상담을 진행했고, 참여 어르신 대부분은 규칙적인 운동과 약 복용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과 로봇수술 1,000례 달성

의정부성모병원 외과 로봇수술팀이 최근 로봇수술 1,000례를 달성했다. 4세대 다빈치 Xi 로봇수술 장비를 도입한 이후 외과 로봇수술팀은 췌장암절제술(췌십이지장 절제술), 간암절제술, 대장암, 식도암, 위암, 갑상선암, 탈장복원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소침습 로봇수술을 시행해 왔다. 이어 간담췌외과 김기환 교수가 개인 로봇수술 800례를 달성하며, 경기북부 지역 로봇수술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의정부성모병원은 앞으로도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정교한 수술을 제공하고, 로봇수술의 적용 범위를 넓혀 경기 북부 지역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천성모병원

국내 최초 《국제 의공기사 시험 가이드북》 출판



부천성모병원 구매관리팀 의공학Unit이 국내 최초로 《국제 의공기사 시험 가이드북》을 출간했다. 의공학Unit은 미국 AAMI에서 시행하는 국제 의공기사(CBET) 자격을 전원 취득해 화제가 된 바 있다. 국제 의공기사는 병원 의료기기 전문가로 인정하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자격으로, 합격률이 매우 낮은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시험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하기에 의공학Unit은 시험 준비 과정의 경험과 정보에 대한 내용을 담아 책을 제작했다.

은평성모병원

지역 사회와 함께한 작은 음악회



은평성모병원은 최근 병원 1층 로비에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해 지역 청년들과 군 장병들이 함께 참여하며 지역 사회와의 소통과 나눔의 의미를 담았다. 이번 무대에는 약제부 강다희 선임, 육군 장병들, 그리고 M.O.A 양상블팀이 참여해 총 6곡을 선보였다. 이번 음악회는 지난 5월에 이어 다시 공연에 참여한 장병들과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후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들로 구성된 MOA 양상블팀이 함께한 무대여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성빈센트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 인력 23명 배출

성빈센트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는 최근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 인력 표준교육과정 II(실무교육)'을 운영해 총 23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했다. 이번 교육은 호스피스·완화의료 필수 인력인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한 법정 교육으로, 교육을 이수한 참가자들은 호스피스 전문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동정



* 기관별 / 가나다 순

의료 선진국에 강연·교육 실시



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김진성 교수가 최근 유럽을 방문해 스위스와 스페인의 주요 병원과 학회에서 최소침습 척추 수술 분야의 순회 학술 일정을 소화했다. 김 교수는 교육과 강연을 아우르는 활동으로 국제 무대에서 K-의료의 전문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ICL 제거 환자 연구, 3개 학회 연속 수상



서울성모병원 안과 정소향, 여의도성모병원 윤혜연 교수가 공동으로 ICL 제거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해 각막 내피세포 손실의 원인과 회복 가능성을 세계 최초로 정밀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3개 학회 연속 수상을 달성했다.

미국내분비학회 산하 위원회 위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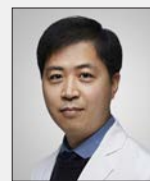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하정훈 교수가 최근 미국 내분비학회 산하 골대사 위원회의 Steering Committee 위원으로 위촉됐다. 하 교수는 아시아 지역 대표로서 다양한 임상 경험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교육 프로그램 기획, 공동연구 기획 발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대한위장관외과학회 우수구연상



은평성모병원 위장관외과 김동진, 의정부성모병원 이준현 교수 연구팀은 로봇을 활용한 최소침습 식도절제술이 기존 흉강경 기법에 비해 입원 기간을 줄이고 합병증 발생률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2025 대한위장관외과학회에서 우수구연상을 받았다.

통증을 주제로 한 소설 발간



인천성모병원 신경외과 장일 교수가 통증의 본질을 탐색하며 우리 곁의 아픈 이들을 위로하는 소설 《어린왕자와 통증행성들: '아픔'을 마주한 어린 여행자의 성장이야기》를 펴냈다. 이 책은 장 교수의 오랜 임상 경험과 인간에 대한 깊은 철학적 성찰이 녹아든 결과물이다.

아시아 의료경영자 모임 참석 및 술기 전수



성빈센트병원 진료부원장 윤주희 교수가 최근 인도에서 열린 아시아 의료경영자 모임에 한국 대표로 참석해 발표 및 패널 토론에 참여했다. 윤 교수는 또한 인도 Max Super Speciality Hospital의 초청을 받아 현지 의료진을 대상으로 술기 교육을 진행하며 한국의 의료기술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포천 이주민 대상 의료 봉사 수혜자 1천 명 돌파

점심 식사 나눔과 무료 진료 봉사 등 외국인 주민 대상 29차 의료 나눔 진행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사회공헌 전담 기구인 '가톨릭메디컬엔젤스'가 주관하는 포천시 이주민 대상 무료 진료 누적 수혜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포천시는 경기도 내에서 이주민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약 2만 명이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들이다. 산업 현장에서 일하며 지역 사회를 지탱하고 있지만, 언어·경제적 어려움과 거리 등의 문제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에 가톨릭중앙의료원은 포천시 의료 사각지대의 외국인 주민 및 민간 협업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2023년 7월부터 매달 1회 이상 지속적으로 포천시 솔로루 이주사목센터에서 외국인 주민 대상 무료 진료소를 열었다. 단순한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진행으로 통해 올해 8월까지 29차례의 봉사, 총 1,001명의 이주민이 진료를 받았다.

이 봉사에는 가톨릭대학교 부속병원 의료진이 적극 참여했으며 의료진뿐만 아니라 교직원의 가족, 의과대학/간호대학 학생들까지 자발적으로 봉사에 동참하면서 봉사의 폭이 넓어졌다. 최근에는 무더운 날씨 속에 복날을 맞아 정성스런 식사 나눔과 의료 봉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외국인 이주민 160여



명에게 닭죽과 바나나 등으로 구성된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무료 진료 봉사를 진행했다.

특히 계절적 어려움과 문화적 단절 속에 놓인 이주민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안정감과 공동체 소속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사회공헌 활동은 단순한 자선의 차원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치유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인도에서 전해온 따뜻한 온기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빛이 있습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에 또 한 번의 따뜻한 손길 이 전해졌다. 최근 천주교 신자인 기부자(세례명 : 베르나르도)가 소아환자를 위한 불우환우돕기 기금으로 1백만 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지난 네 차례의 나눔에 이은 다섯 번째로, 누적 금액은 총 3백만 원에 달한다.

기부자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 근무한 지 15년 차인 직장인으로, 현재 인도에서 주재원으로 일하고 있다. 강남성모병원에서 태어나 성장 유치원을 다니고, 중학교 시절 세례를 받은 천주교 신자로 CMC와의 인연을 소개했다.

또한, 그는 부모님이 질병으로 여러 차례의 고비를 맞이했을 때 서울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이겨낸 순간을 말하며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근무 중인 대학 친구로부터 병원의 기부 활동을 소개받아 후원을 결심했다고 한다.

“저와 제 가족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많은 것을 받았습시다. 기부하는 그 감사함을 조금씩 되돌려드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고 후원 소감을 말하며, “제 나눔이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져 그들에게 다시 살아갈 힘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



함께 나누는 마음, 함께 만드는 변화 하현석 기부자, 가톨릭중앙의료원에 2년째 기부

서울성모병원과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환우가 최근 생명존중기금으로 기부금 1천5백만 원을 전달했다.

하현석 기부자는 보고편자산운용에서 부동산 투자 및 운용을 책임지고 있는 금융인으로, 지난해에 연구기금과 자선기금에 후원하며 나눔을 실천해 왔다.

서울성모병원과의 인연은 2014년 내분비내과 임동준 교수의 외래 진료로 시작되었다. 이후 갑상선내분비외과 배자성 교수, 순환기내과 김성환 교수의 진료를 보고 도움을 받으며 지속적인 관계를 쌓아왔다.

그는 “서울성모병원에서 환자를 위한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과 친절한 의료진을 경험했고, 재작년 어머니 수술을 통해 큰 도움을 받으며 CMC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다.”며 기부 계기를 밝혔다.

이어서 “많은 도움을 받은 가톨릭중앙의료원에 후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발전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고 계속 동참할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고 기부 소감을 전했다.



2025년 7월 신규 약정자 명단



가톨릭중앙의료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 발전기금				성가사선회											
• 생명존중기금(의료원위임)				• 병원발전기금(위임) (재)한국의학연구소				(재)한국의학연구소				부천성모 가능검사팀											
익 명	10,000원	이안준	200,000원	김대호	100,000원	이필순	2,000,000원			4,500,000원			부천성모병원_모금함		143,390원								
정아현	360,000원	하현석	15,000,000원	• 성모자선회				익 명		10,000원			이해남		300,000원	정미	10,000,000원						
• 공통사용 불우환우돕기				김나연	매월	5,000원	조규원	매월	5,000원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261,100원	채용환		100,000원	정현숙	매월	20,000원			
익 명	30,000원	故 박재영	3,000,000원	• 호스피스 발전기금				익 명		200,000원													
• 공통사용 불우환우돕기(소아)				김소희	매월	500,000원	이정하	매월	3,000,000원														
				오영주	매월	100,000원	이찬휘	매월	20,000원														
대학(성의교정)				• 위임(기부자별관리)																			
• 의과대학 장학기부금				강은진	매월	100,000원	유한태	매월	150,000원	양혜은	매월	100,000원			• 병원발전기금(위임)		곽창도로	매월	200,000원				
• (혜산)보건대학원장학금				혜산장학회	매월	2,400,000원			김지우		매월	100,000원			김보중		매월	1,000,000원	익 명	매월	3,000,000원		
• 유니버시티파크				(주)더블유앤에이치	매월	1,000,000원			이우성		매월	10,000원			• 은평성모자선회		익 명	매월	300,000원				
• 의대/간대 장학금				(주)우리은행	매월	450,000원			이천복		매월	10,000,000원			은평성모 간호부		6,595,200원	이현숙	매월	100,000원			
• 일반대학원 장학금														홍재택		매월	2,000,000원	김시은	매월	5,000원			
(재)가톨릭의과대학 내과연구재단				매월	16,122,000원									• 호스피스 발전기금		허광석	매월	100,000원					
• 임상치과대학원 장학금																							
(주)오스템임플란트				매월	12,000,000원									• 호스피스 발전기금		임창근	매월	50,000원					
														• 의정부성모병원 불우환우돕기		오만준	매월	50,000,000원	정희정	매월	600,000원		
														• 의정부성모병원 불우환우돕기		오만준	매월	50,000,000원	정희정	매월	600,000원		
														• 의정부성모병원 불우환우돕기		오만준	매월	50,000,000원	정희정	매월	600,000원		
														• 의정부성모병원 불우환우돕기		오만준	매월	50,000,000원	정희정	매월	600,000원		
														• 의정부성모병원 불우환우돕기		오만준	매월	50,000,000원	정희정	매월	600,000원		
														• 의정부성모병원 불우환우돕기		오만준	매월	50,000,000원	정희정	매월	600,000원		
														• 의정부성모병원 불우환우돕기		오만준	매월	50,000,000원	정희정	매월	600,000원		
														• 의정부성모병원 불우환우돕기		오만준	매월	50,000,000원	정희정	매월	600,000원		
														• 의정부성모병원 불우환우돕기		오만준	매월	50,000,000원	정희정	매월	600,000원		
														• 의정부성모병원 불우환우돕기		오만준	매월	50,000,000원	정희정	매월	600,000원		
														• 의정부성모병원 불우환우돕기		오만준	매월	50,000,000원	정희정	매월	600,000원		
														• 의정부성모병원 불우환우돕기		오만준	매월	50,000,000원	정희정	매월	600,000원		
														• 의정부성모병원 불우환우돕기		오만준	매월	50,000,000원	정희정	매월	600,000원		
														• 의정부성모병원 불우환우돕기		오만준	매월	50,000,000원	정희정	매월	600,000원		
														• 의정부성모병원 불우환우돕기		오만준	매월	50,000,000원	정희정	매월	600,000원		
														• 의정부성모병원 불우환우돕기		오만준	매월	50,000,000원	정희정	매월	600,000원		
														• 의정부성모병원 불우환우돕기		오만준	매월	50,000,000원	정희정	매월	600,000원		
														• 의정부성모병원 불우환우돕기		오만준	매월	50,000,000원	정희정	매월	600,000원		
														• 의정부성모병원 불우환우돕기		오만준	매월	50,000,000원	정희정	매월	600,000원		
														• 의정부성모병원 불우환우돕기		오만준	매월	50,000,000원	정희정	매월	600,000원		
														• 의정부성모병원 불우환우돕기		오만준	매월	50,000,000원	정희정	매월	600,000원		
														• 의정부성모병원 불우환우돕기		오만준	매월	50,000,000원	정희정	매월	600,000원		
														• 의정부성모병원 불우환우돕기		오만준	매월	50,000,000원	정희정	매월	600,000원		
														• 의정부성모병원 불우환우돕기		오만준	매월	50,000,000원	정희정	매월	600,000원		
														• 의정부성모병원 불우환우돕기		오만준	매월	50,000,000원	정희정	매월	600,000원		
														• 의정부성모병원 불우환우돕기		오만준	매월	50,000,000원	정희정	매월	600,000원		
														• 의정부성모병원 불우환우돕기		오만준	매월	50,000,000원	정희정	매월	600,000원		
														• 의정부성모병원 불우환우돕기		오만준	매월	50,000,000원	정희정	매월	600,000원		
														• 의정부성모병원 불우환우돕기		오만준	매월	50,000,000원	정희정	매월	600,000원		
														• 의정부성모병원 불우환우돕기		오만준	매월	50,000,000원	정희정	매월	600,000원		
														• 의정부성모병원 불우환우돕기		오만준	매월	50,000,000원	정희정	매월	600,000원		
														• 의정부성모병원 불우환우돕기		오만준	매월	50,000,000원	정희정	매월	600,000원		
														• 의정부성모병원 불우환우돕기		오만준	매월	50,000,000원	정희정	매월	600,000원		
														• 의정부성모병원 불우환우돕기		오만준	매월	50,000,000원	정희정	매월	600,000원		
														• 의정부성모병원 불우환우돕기		오만준	매월	50,000,000원	정희정	매월	600,000원		
														• 의정부성모병원 불우환우돕기		오만준	매월	50,000,000원	정희정	매월	600,000원		
														• 의정부성모병원 불우환우돕기		오만준	매월	50,000,000원	정희정	매월	600,000원		
														• 의정부성모병원 불우환우돕기		오만준	매월	50,000,000원	정희정	매월	600,000원		
														• 의정부성모병원 불우환우돕기		오만준	매월	50,000,000원	정희정	매월	600,000원		
														• 의정부성모병원 불우환우돕기		오만준	매월	50,000,000원	정희정	매월	600,000원		
														• 의정부성모병원 불우환우돕기		오만준	매월	50,000,000원	정희정	매월	600,000원		
														• 의정부성모병원 불우환우돕기		오만준	매월	50,000,000원	정희정	매월	600,000원		
														• 의정부성모병원 불우환우돕기		오만준	매월	50,000,000원	정희정	매월	600,000원		
														• 의정부성모병원 불우환우돕기		오만준	매월	50,000,000원	정희정	매월	600,000원		
														• 의정부성모병원 불우환우돕기		오만준	매월	50,000,000원	정희정	매월	600,000원		
														• 의정부성모병원 불우환우돕기		오만준	매월	50,000,000원	정희정	매월	600,000원		
														• 의정부성모병원 불우환우돕기		오만준	매월	50,000,000원	정희정	매월	600,000원		
														• 의정부성모병원 불우환우돕기		오만준	매월	50,000,000원	정희정	매월	600,000원		



가톨릭중앙의료원 기초의학사업추진단 중환자실 환자 위한 SI 의료 비서 개발 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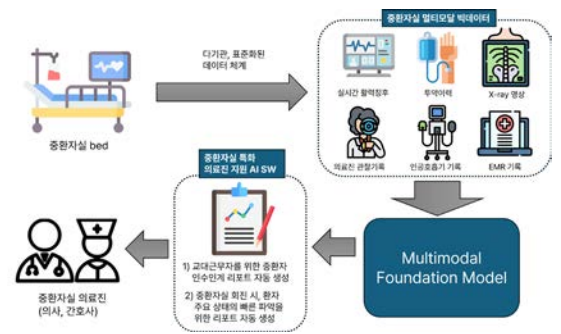
다기관-멀티모달 연합학습 기반
중환자실 업무 돕는 인공지능 기술 시범 모델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기초의학사업추진단 인공 지능뇌과학사업단의 고태훈 교수(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 료정보학교실)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보건 의료 기술 연구 개발사업 중 '다기관-멀티모달 연합학습 기반 의료 인공지능 기술 시범 모델 개발 연구 과제'의 주관 연구책임자

로 선정됐다. 이 과제는 전국 주요 대학병원들과 협력해 진행되며, 향후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이 가능한 AI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고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중환자실에 특화된 AI 모델을 개발하게 된다. 중환자실은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들이 집중 치료를 받는 곳으로, 의료진의 빠르고 정확한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환자별로 쌓이는 생체신호(심박수, 혈압 등), 전자 의무기록(진료 기록, 약 처방 등), 의료영상(CT, MRI 등) 등 다양한 정보를 일일이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은 의료진에게 부담이 되기도 한다.

고 교수는 이처럼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함께 학습할 수 있는 '멀티모달(Multimodal)' 기반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 예정이다. 이는 다양한 형식의 정보를 한꺼번에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기술로, 이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될 'SI 에이전트'는 의료진의 실질적인 업무를 돕는 디지털 조수 역할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간호사가 근무를 교대할 때, 중환자의 상태 변화나 중요한 처치 내용을 SI가 자동으로 정리해 '인수인계서'를



생성해 주는 기능이 포함된다. 이 때문에 의료진의 확인 시간은 줄고, 환자 정보는 더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다.

이번 과제는 서울아산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분당차병원과 함께 5개 주관기관이 참여하며, 총 사업비는 약 23억 7,500만 원 규모로 5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임상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병원 환경에서 테스트를 거칠 계획이다.



인천성모병원 진단검사 자동화 시스템 'DxA 5000' 국내 최초 도입

검사 정확도 향상과 시간 단축 기대
면역질환 정밀 검사 역량도 강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은 진단검사의학 분야의 정확성, 속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최신 진단검사 자동화 시스템(TLA, Total Laboratory Automation) 'DxA 5000'을 도입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진단검사 자동화 시스템은 환자에게서 채취한 혈액 검체의 투입부터 분류, 운반, 분석, 결과 보고 등 전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번에 도입된 '벡크만쿨터(Beckman Coulter)'사의 'DxA 5000'은 검사 전 과정의 자동화와 실시간 오류 감지 기능을 갖춘 최신 시스템으로, 검사 정확도 향상과 결과 보고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함께 도입된 면역 분석기 'Dxl 9000'은 대용량 검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장비로, 다양한 면역질환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인천성모병원은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검사 환경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환자 중심의 진료 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인천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이승욱 교수는 "최신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게 돼 검사 전 과정을 더욱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환자들에게 신



속하고 정확한 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빈
센트

우즈베키스탄 의료진 연수 성료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의 우수한 술기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은 우즈베키스탄 의료진의 연수 수료식이 열렸다.

성빈센트병원을 찾은 의료진은 우즈베키스탄 국립 타슈켄트 의과대학교(Tashkent Pediatric Medical Institute) 산부인과 과장 쿠르바노프 바카디르 교수와 소아청소년과 신경학 전문의 도니오로바 파랑기스 조교수다.

우즈베키스탄 의료진은 산부인과 박동춘 교수의 로봇수술을 참관하고, 콘퍼런스에 참석해 최신 임상 지견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또한, 병원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성빈센트병원의 의료 시스템과 환자 중심의 진료 환경을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다.

연수를 마친 쿠르바노프 바카디르 교수는 "이번이 성빈센트병원 산부인과에서의 세 번째 연수인데, 매번 세심하고 알찬 연수 프로그램에 큰 감동을 받는다."며 "이번 연수가 우즈베키스탄 의료 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전
성모

입원·취약환자 동행 서비스 실시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은 입원환자 및 건강 취약 환자의 병원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원내 동행 서비스'를 도입, 본격 운영에 나섰다.

대전성모병원은 원내 동행 서비스를 통해 입원환자 및 고령환자, 이동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 장애인 등 취약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 이용 과정을 1대1로 지원하게 된다.

동행 서비스 제공 범위는 진료실·검사실 안내 동행, 입원환자 병실 동행, 키오스크 안내 등으로 병원 이용 편의를 위한 다양한 맞춤 서비스가 해당된다. 대전성모병원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달 대전시 중구 시니어클럽과 업무계약을 맺고 4명의 전담 인력을 채용,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강전용 병원장은 "젊은 층도 병원에 처음 방문하면 헤매기 마련인데 건강 취약계층은 키오스크 사용부터 진료실 이용의 모든 과정들이 낯설고 어려울 것"이라며 "앞으로도 방문객들의 의료서비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연구중심병원 인증사업 첫 삽 뜨다!

보건복지부 주관 **"한미혁신성과 창출 R&D 사업"**
신규 인증병원 중 유일 선정 쾌거!

기술 리더십에 기반한 **'한미 공동연구'**
서울성모병원이 끌고, 스탠포드 의과대학이 함께 된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인증 이후 인증기관만을 대상으로 한 첫 연구비 지원 사업에 선정되며, 정밀재생의료의 첫 글로벌 과제를 떠내며, 정밀재생의료의 세계적 리더십을 입증했다.

이번 과제는 미국 스탠포드 의과대학과 함께하는 저면역원성 유도만능줄기세포(iPSC) 기반 세포치료제 개발 연구로, 총 70억 원 규모의 한미 공동 프로젝트다. 'NICE(Not-visible iPS Cell)' 프로젝트로 명명된 연구는 CRISPR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 면역거부반응을 최소화한 iPSC 세포주를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골·심근세포 치료제의 전임상 및 임상 실증까지 이어간다. 서울성모병원은 국내 대학병원 최초로 GMP 등급 iPSC 세포주 생산부터 임상 진입까지 경험을 보유한 기관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심장 등 고면역 조직까지 치료 범위를 확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주지현 교수는 이번 연구의 국내 주관책임자로, 국내 최초 iPSC 기반 연골세포치료제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선도 연구자다. 주 교수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저면역원성 iPSC 플랫폼의 임상 실증과 글로벌 진입 전략을 총괄한다. 주지현 교수는 "이번 성과는 연구중심병원으로서 글로벌 임상·사업화 플랫폼을 확보한 첫 사례"라며, "기술 플랫폼의 고도화와 함께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실증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및 사업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과제는 올해 신규로 인증받은 11개 기관 중 서울성모병원이 유일하게 선정되어 그 의미가 크다. 서울성모병원은 이번 한미 공동연구를 통해 글로벌 연구중심병원을 선도하는 핵심 주체로 도약할 계획이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Stanford
MEDICINE

2024년 국내 기증 각막이식 전국 1위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 안과병원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2024년도 장기등 기증 및 이식 통계연보'(2025년 7월 발표) |

| 국내 총 153건 중 여의도성모 안과병원 30건 시행, 19.6% 차지 |

장기이식의료기관별 안구 이식 현황

지역	관리기관	장기등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계	344	370	335	330	153
		뇌사	290	301	287	247	129
		사후	54	69	48	83	24
서울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	뇌사	16	8	8	8	26
		사후	7	11	6	6	4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뇌사				1	
	강북삼성병원	뇌사	2	3			1
	경희대학교병원	뇌사		1	1	2	
	고려대학교구로병원	뇌사	4	3			
		사후		2			
	고려대학교안암병원	뇌사			1	2	
		사후				2	
	삼성서울병원	뇌사	24	14	12	12	7
		사후					1
	서울대학교병원	뇌사	10	2		4	
		사후	2	2			
	서울아산병원	뇌사	27	22	51	35	21
		사후	4	6	11	5	3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뇌사				1	1
	순천향대학교병원	뇌사	5	26	2	2	
	연세대학교남세브란스병원	뇌사	1	2		1	
		사후					2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뇌사	16	12	17	15	3
		사후	2		1	1	
	이대목동병원	뇌사	2	4	4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서울병원	뇌사	1	5	1	3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2024년도 장기등 기증 및 이식통계연보 page 189>





전화예약
1661-7500

평일 - 오전 8시~오후 5시
토요일 - 오전 8시~오후 12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표준화된 진료와 연구



보건복지부인증



AAHRPP인증획득

www.cmcujb.or.kr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UIJEONGBU ST. MARY'S HOSPITAL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제26대 병원장 신경외과 이태규 교수 취임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은 9월 1일 **제26대 병원장으로 신경외과 이태규 교수가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태규 병원장은 “지난 2년간의 진료 공백과 의료 인력 위기 속에서도 필수진료와 중증질환 치료를 지켜낸 직원들의 헌신이 오늘의 의정부성모병원을 만들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태규 병원장은 ▲경기북부 필수의료와 중증진료의 확실한 책임수행 ▲디지털 헬스케어정밀의료 등 미래 첨단의학 도입 ▲가톨릭 정신을 바탕으로 한 따뜻한 공감 의료 실천을 향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의정부성모병원이 환자가 절대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치유의 공간이자, 의료인이 사명감을 가지고 성장하는 공동체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천성모병원을 만나는 쉬운 번호

1577-0675

영 육 치 료



건강, 그 이상의 행복 실현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표준화된 진료와 연구



보건복지부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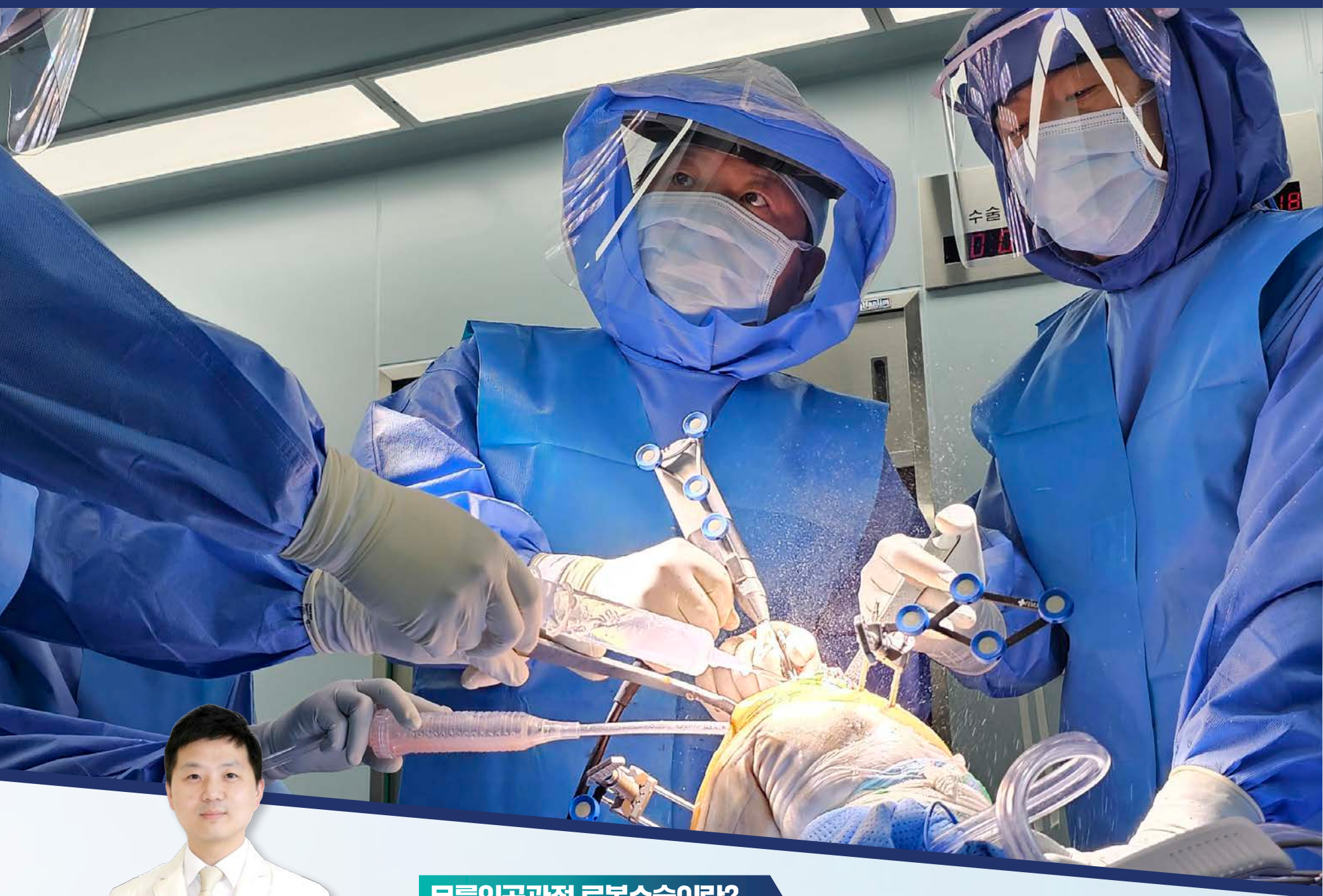


AAHRPP인증 획득

www.cmcbucheon.or.kr

로봇인공관절수술 시행 1년 만에 300례 돌파

경기서부 대학병원 최초 인공관절수술로봇 도입에 이어 최단 기간 달성



**무릎인공관절 로봇수술
전문 의료진**

정형외과 **박 일 규** 교수

[오전] 화 [오후] 월, 목

무릎인공관절 로봇수술이란?

풍부한 임상경험을 갖춘 인공관절 수술 전문 정형외과 전문의가 최첨단 로봇수술 장비를 이용, 환자 개인별 맞춤 3D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손상된 관절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거하고, 환자 본래 체형에 맞는 맞춤형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입니다.

✓ 3D 입체영상 기반 수술 플랜 수립

✓ 연부조직 손상 최소화

✓ 통증 절감으로 빠른 회복

✓ 정밀한 절삭과 환자별 맞춤형 인공관절 삽입

✓ 수술 시 출혈 최소화



전화예약
1811-7755
평 일 : 오전 8시~오후 5시
토요일 : 오전 8시~12시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표준화된 진료와 연구



보건복지부인증



AAHRPP인증 획득

www.cmcep.or.kr

다학제 협진을 통해 최상의 치료를 제공합니다 **은평성모병원 식도암 협진팀**



소화기내과/위장관외과/종양내과/영상의학과/병리과/진단검사의학과/방사선종양학과

식도암 병기에 따른 환자별 맞춤형 치료 제공



식도암 수술 시행

조기 식도암 내시경 치료

점막에 국한된 병변에 대한
내시경 점막하박리술(ESD) 진행

최신 항암-방사선 요법

수술 전 항암-방사선 선행 치료
최첨단 방사선 치료기 '트루빔' 가동

고난도 로봇 최소침습수술

로봇 수술(다빈치 Xi)로
식도 절제술 시행

4기 식도암 치료

면역항암제 병용을 통한
최신 항암 치료
약물 치료 후 수술 기회



최첨단 방사선 치료기 '트루빔' 가동